

# “우리 함께 아세안 영화로 만나요”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영화로 만나는 아세안’ 개최... 아세안 지역 출신 감독 영화 3회 무료 상영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대식)은 전북 도민을 대상으로 ‘영화로 만나는 아세안’을 오는 12일, 11월 6일, 12월 5일 오후 7시 서전주 CGV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KFA아세안문화원과 협력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우리 국민과 주한 외국인에게 아세안 회원국들의 영화를 소개하는 취지이다.

영화로 만나는 아세안에서는 아세안 지역 출신 감독이 만든 영화를 3회에 걸쳐 무료로 상영하며,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세안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1회차인 12일에는 필리핀의 브릴란테 멘도자(Brillante Mendoza) 감독이 연출한 ‘젠산 펀치(Gensan Punch)’를 상영한다. 프로권투선수가 되는 것이 꿈인 장애인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희망과 도전에 관한 이야기로, 일본에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정식 선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주인공이 국제선수 자격을 위해 연구도 없는 필리핀까지 가게 되며 벌어지는 감동적인 내용이다.

두 번째로 11월 6일에는 베트남 최초의 SF 판타지 영화인 ‘마이카: 외계에서 온 소녀(Maika)’를 상영할 예정이다. 38회 로스앤젤레스



영화로 만나는 아세안 포스터  
스 아시안 퍼시픽 영화제에서 심사위원특별상

을 받은 함 트란(Ham Tran) 감독이 연출한 영화로, 8살 소년과 외계인 소녀의 우정과 모험을 다룬다.

12월 5일에는 애니메이션 영화인 ‘1975 킬링 필드, 푸난(Funan)’을 상영한다. 1975년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혁명이 발생하고 광범한 삶을 살던 가족이 강제로 흩어지게 된다. 주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주인공의 이야기로, 실제 프랑스로 망명한 어머니를 둔 디아스포라 2세인 드니 도(Denis Do) 감독이 연출해 더욱 감동을 자아낸다.

이밖에도, 영화와 관련된 나라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각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진흥원 홈페이지, 구글 폼 및 전화(063-280-6133)를 통해 사전 신청을 하고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김대식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은 “영화로 만나는 아세안이라는 기회를 통해 아세안 나라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국제 사회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전북만의 특별한 치유관광 떠나요”

전북문화관광재단, 12월 15일까지 전북 치유관광 상품 기획전 운영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12월 15일까지 ‘전북 치유관광 상품 기획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북 치유관광 상품 기획전은 ‘한국 치유관광 페스타’ 연계뿐만 아니라 엔데믹 이후 지속 성장하는 치유관광 수요 증가에 맞춰 전북 치유관광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다양한 여행 상품과 이벤트가 진행된다.

전북 치유관광 상품은 지난 6월 전북도에서 선정한 4가지 테마(자연/치유, 힐링/명상, 전통/생활문화, 뷰티/스파)의 전북 치유관광지 10개소와 연계해 당일 또는 숙박 상품들로 구성돼 있다.

상품을 예약한 고객은 시 테라피, 게르마늄 온천, 마인드 케어, 약초 밥상 등 전북도만의 특별한 치유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전북도에서 품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놀고팜 홈페이지(www.nolgo.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놀고팜(063-229-8599)에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 치유관광 여행상품 할인기획전 홈페이지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24년 상반기 정기대관 신청 접수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오는 23일까지 2024년 상반기 정기대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시설은 모악당, 연지홀, 명인홀, 야외공연장 등 공연장 4개소와 갤러리 S·O·R·I 등 전시장 4개소와 국제회의장이다. 공연장과 전시장, 국제회의장 대관 가능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대관 가능일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야외공연장은 동절기(1월~3월, 대관불가)가 끝나는 4월 1일부터 협의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홈페이지 대관안내에서 대관신청서류를 내려 받은 후 이메일(kosac7842@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대관 승인은 심의 결정을 거친 후 11월 6일 전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70-7842)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정읍시는 13일부터 15일까지 칠보면 태산선비마을 일원에서 ‘칠보 가고 선비 보고 축제’를 개최한다.

## ‘칠보 가고 선비 보고 축제’ 개최

정읍시, 태산선비마을 일원서 13~15일 다채롭게 진행

정읍시는 13일부터 15일까지 칠보면 태산선비마을 일원에서 ‘칠보 가고 선비 보고 축제’를 개최한다.

13일 진행되는 전야제에서는 너나들이 영화제가 진행되며, 14일 본 축제에서는 너나들이 노래자랑과 시립국악단 공연, 주민 공연 등 역사문화 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가족과 함께하는 별빛야행 야외영화제에서는 축제장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영화를 관람하며 가을밤의 정취를 흠뻑 만끽할 수 있다.

옛 조상들의 일상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선비 예절과 다례·전통놀이·한식디저트

등의 체험을 통해 잊고 있던 전통 문화를 경험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태산선비마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무성서원을 품고 있는 곳으로, 축제기간 이외에도 목공·전통탁본·뽕글씨·떡메치기 등 농촌과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태산선비마을은 윤연희 대표와 이경연 축제추진위원장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주민들이 주도해 축제를 준비했다”며 “칠보 지역의 지속가능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한국전통문화전당, 제2회 한지의 날 행사 개최

한지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합찬 발걸음을 전주전년한지관에서 내디뎠다.

1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전주전년한지관에서 한지 장인을 비롯한 한지 관련 전문가와 종사자, 유관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지의 날 1주년 기념 리셉션’(제2회 한지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통한지를 한국의 23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 한지의 날 선포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영혜 종이문화재단 이사장의 축시 낭송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한지 바람 쓰고 한지 함께 열일 기원’ 세레머니에서 주요 내빈들이

‘한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바람’을 두루마리 족자에 적고, 이를 낭독한 후 한지함에 보관했다. 보관된 족자는 3년 뒤인 2026년 한지가 인류 무형유산으로 확정된 후 다시 이 자리에서 함을 열어 축하하기 위한 사전 의의이다.

김도영 원장은 “‘한지의 날’은 한지에 담긴 조상들의 열과 지혜에 감사하고 이를 인류의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후손들의 신념”이라며 “‘한지의 날’이 한지의 유무형적 가치를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주춧돌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지의 날’은 지난해 한지살리기재단이 이사회를 통해 10월 10일을 ‘한지의 날’로 제정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